

## 大切な思い出として残る信州

2003年9月～2004年8月受入交換留学生  
韓国カトリック大学言語文化学部 3年  
尹 賢珠(ユン・ヒョンジュ)

交換留学生の合格発表が出てドキドキしたのが昨日のようだが、もう日本での生活も終わりだ。2003年10月1日。今となったらすでに一年前となったあの日のことを思い出す。

家族や友達と離れて一人で暮らすのが初めてだったので、私は複雑な気持ちだった。それと同時に新しい場所に行き、新しい人々に会い、新しいことを学ぶ。それが楽しみでもあった。しかし、やはり楽しい気持ちより、不安と怖い気持ちのほうがもっと大きかった。日本に来て最初に会った日本人はチューターのさおりだ。その日はさおりの部屋に泊まらせてもらったが、そのときの緊張感は口に出せないくらいだった。しかし今は楽しみと名残惜しみの気持ちで韓国に帰る日を待っている。ここで、これまでの一年間の私の日本での生活を振り返ってみたいと思う。

まず、私が一番ありがたいと思うのはチューターとして友達として私のそばにずっと一緒にいてくれたさおりに会ったことだ。日本に来たその日から今までさおりは私が大変なとき、嬉しいとき、悲しいとき、いつも一緒にいてくれた。春休みのときはさおりの実家にも遊びに行ってきた。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そしておばあさんもみんな本当に親切に私を迎えてくれた。家族が懐かしい私にとってそれは本当に嬉しいことだった。お父さんとお母さんは忙しい中、いろいろなところにも連れて行ってくれた。日本に行ったら必ず行ってみたいと思った富士山も見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さおりやさおりの家族はもう他人ではなく、私の家族だと思っている。

次に、時間ができれば近いところでも旅行に行ってきた。最初の旅行であり、一番遠かった旅行の場所は北海道だ。松本から北海道の札幌までは2時間くらいかかった。韓国に行く時間と同じだ。日本と韓国が本当に近いのをもう一度実感することができた。北海道は本当に寒かった。映画ラブレターの撮影地だった小樽にも行って写真を撮ったが、まるで自分が映画の主人公になったような気分だった。京都にも行ってきたが、京都は昔の雰囲気を感ずることができた。1泊2

日の短い日程だったので私は急いで京都中を歩き回った。京都旅行で一番印象に残ったところは金閣寺だ。中のほうより庭のほうがもっときれいだった。見学に来ていた日本人の中で着物を着ていた女の子たちがいたので一緒に写真を撮ってもらってとても嬉しかった。東京は3回くらい行ったが、やはりソウルとあまり変わらないと思った。静かな松本からたまに東京に行くとは活気にあふれた都会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日光や箱根も楽しかった。日光は3月の中旬くらいに行ったのにかなり寒かった。他にもいろいろなところを旅行した。松本近郊は上高地をはじめとして奈良井や美ヶ原高原などに行ってきた。

最後に、茶道を習うことができたのは本当によかった。日本の伝統文化の一つである茶道は私にいろいろなことを教えてくれた。最初はお茶を飲むだけなのにいろいろと複雑だなと思ったが、習うにつれて少しずつ茶道の精神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た。茶道を学びながら一番大変だったのはやはり正座だ。いすの生活に慣れていて私にとって正座はもう茶道なんかやめようかと思ったくらい大変だった。でも、いまは平気だ。もしそのとき我慢せずに、そのままやめたら多分今はすぐ後悔していると思う。茶道は一つ、一つ心を込めてすることが一番重要。だから動作の一つ、一つに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現代の生活はみんな忙しい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多いのであまりゆとりがない。そのような生活の中で茶道の精神は私にゆとりを持たせ、気を落ち着かせてくれた。

このような経験ができたのは信州に来たからだと思う。信州に来て最初は遊ぶところも多いし、にぎやかな東京のほうがよかったかなと思ったこともあったがやはり信州に来てよかったと思う。日本に来た一番重要な理由は勉強のためだったのでそれを考えると信州はリラックスできる本当にいい環境だと思う。家族が懐かしいし、友達に会いたくなり、また私の日本語の実力は何で向上しないのかなと思って、韓国に帰りたいと思うくらいいつらいつきもあったが楽しかったときの方がもっとたくさんある。それはいい人たちに出会えたからだ。だから楽しい1年を過ごすことができたと思う。いつもお母さんのように温かくしてくれた小林さん。日本に来たばかりのときあまりにも料理が苦手だった私に小林さんはおいしいご飯を食べさせてくれた。そのご飯の味はいつまでも忘れられない。韓国に帰って家族や友達に会うのは楽しみだが、日本の大切な人々と別れるのは本当に悲しい。でも、またいつか必ず会えるからお互いに頑張りながらそのときを待ちたいと思う。一年間いろいろ面倒を見てくれた先生方、友達に心から感謝している。

## 학습성과 리포트      일년간의 신슈대학에서의 유학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신슈대학교 교환학생  
가톨릭대학교 언어문화학부 3학년 윤현주

첫유학. 그 중에서 신슈대학에서의 생활. 1년간의 짧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1년은 나에게 일본어는 물론 일본인과의 만남에도 자신을 갖게 해 주었다. 수업은 어려워 어려워 생각하면서도 점점 일본어가 들리게 되었고, 수업의 내용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유학생센터의 수업과 일본 일본인 학생이 듣는 수업, 양쪽을 들었는데 각각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었다. 유학생센터의 수업은 역시 일본 수업보다 쉽고 재미있었다. 일본어를 말하는 것이 아직 서툴렀고, 창피했지만 유학생센터의 수업은 일본어의 실력은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사정등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10월부터의 후기, 4월부터의 전기에서 이수한 수업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에 남는 수업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후기에는 이문화이해, 현대한국(젊은이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문학강독, 전통문화실습, 조선언어문화특론, 일본사정(일본의 문화),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일본어교육학개론, 일본어(독해중심), 일본사회와 일본인의 10 과목을 이수했다.

이문화이해라는 수업에서는 과목명 그대로 일본의 문화이외에도 여러나라의 문화를 공부했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나라에 달라 그것을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나라를 공부할 수 있었고, 외국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게 되었다. 현대한국(젊은이들의 문화를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의 영화와 음악등을 보고, 들으며 일본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 쌍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인과 이야기 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또 일본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창피했던 나에게 있어서, 이 수업은 일본인 앞에서 이야기 하는 연습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재인식 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 한국의 음악과 영화를 보고 한국이 그리워졌다. 전통문화실습은 일본의 전통문화를 단지 선생님에게 듣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실정할 수 있는 수업이다. 일본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기모노였던 나에게 기모노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쁜일이였다. 한국에도 한복이라고 하는 전통의상이 있지만 한복이 여유로운 느낌이 든다면 기모노는 딱 맞아 꼭끼는 느낌이 든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한복을 입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활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온화한 느낌이 드는 한복이 일본의 기모노처럼 더욱 활발히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사도는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아 개인적으로 사도 선생님택에 가서 배웠다.

전기에는 일본문학개론, 현대한국, 문학강독 I,II, 전통문화실습, 조선언어문화특론, 일본사정, 일본어교육학개론, 일본어(표현중심), 일본사회와 일본인,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의 11 과목의 수업을 이수했다.

일본문학개론은 인문학부 수업으로 일본문학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학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공부했다. 이 수업은 다른 일본 일본인학생들과 같은 입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역시 한자와 수업의 내용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등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일본어능력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 필기가 너무 빨라서 한자가 서투른 나에게 정말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다른 일본인학생과 같은 속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일본사회와 일본인에서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해서 자기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발표하며 일본과 비교해보았다. 상호의 비교를 통해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정책, 일본인의 생각방법을 배웠다. 일본어교육학개론에서는 음성학과 의미론, 사회언어학을 깊게 공부할 수 있었다. 또 일본어를 전문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이 수업은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일본어(표현중심)은 대활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일본어기능의 하나인 논문, 리포트를 쓰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이처럼 신슈대학에서 지낸 1 년간은 정말로 충실한 1 년이었다. 특별히 내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어능력시험 1 급에 합격한 것과 일본의 전통문화의 하나인 사도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일본인과 창피해하지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 나는 일본어가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으로 선택해서 일본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함께 생활한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성과였다. 이론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일본어를 모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것이 가능했다. 단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텔레비전을 보고, 일본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나에게 공부 되었다. 유학생생활을 끝난 후에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이제부터의 인생에 활용해 가고,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